

한전 등 주요 전력그룹사 올해 살림살이 안에선 내실화 추구 ... 밖에선 돌파구 찾는다

한전 등 주요 전력그룹사의 한 해 계획이 확정됐다. 한전의 경우 올 한 해는 독립사업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발전회사들은 날로 상승하는 연료비에 대응해 차세대 연료 기술력 확보 등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성장세가 주춤한 국내 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전력사업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전력그룹사의 올 한 해 살림살이 계획을 자세히 정리해봤다.

한전, 올 수익 30조 달성 목표

지난해 29조3000억원의 수익을 올렸던 한전은 올해 30조7000여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구입단가가 전년대비 4.8% 증가할 것으로 보여, 비용도 지난해 27조3700억원에서 29조5400억원으로 늘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해 1조9570억원을 기록했던 순이익 규모가 1조1500억원 수준으로 줄 것으로 예상했다.

한전의 올 한 해 설비투자예산은 작년보다 6340억원 증가한 4조 5216억원으로 결정됐다. 이 중 1조 8060억원은 송변전설비에 투자되며, 1조9510억원은 배전운영선진화 등 배전분야에 투자된다. 업무설비 등에도 7460억원 가량이 투자예산으로 잡혔다.

한전의 올 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독립사업부제의 조기 정착이다.

한전은 이를 위해 본사 권한을 대폭 사업소로 위양하고, 사업부제 운영성과 분석모델 개발 및 성과평가를 시행키로 했다. 사업소로 위양되는 본사의 권한은 △사택정수 및 전세자금 조정 운영권한 △특수작업수당 운영권한 △안전장구 시험 및 정수관리 업무 등이다.

한전은 이러한 권한 위양을 통해 사업소들이 독립사업부제의 취지에 맞게 자율적인 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으며 독립사업부제의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한전은 사업본부 자율편선 예산의 피드백 및 추가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사업본부 조직운영시스템을 강화해 독립사업부제에 적합한 예산과 정원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독립사업부 책임회계 및 성과평가시스템을 운영해 실적을 분석하고, 사업부 특성

에 맞는 평가지표를 운영하며, 성과보상에 대한 사업본부장 재량확대를 추진할 방침을 세웠다.

또 독립사업부제 운영성과 분석을 위해 사업부제 도입 이후 변화흐름 파악을 목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며, 성과분석 모델을 개발해 올해 말 중간평가를 거쳐 내년 말경 종합평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본사 조직 개편도 단행됐다. 한전은 본사 조직을 기존 5본부 27처(실) 114팀(T/F포함)에서 5본부 24처(실) 87개 팀으로 3처(실)과 27개 팀을 축소했다. 또한 기획본부는 경영기획본부로, 관리본부는 경영지원본부로, 대외사업본부는 해외사업본부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본사의 경우 직할은 홍보실이 문화홍보실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능이 보강되며, IT추진 조직이 통합돼 경영혁신실에 속하게 된다. 기술기획실에 품질경영팀을 신설해 품질경영을 강화하고, 경영혁신실 민원정책팀을 폐지해 기획처 법무팀으로 기능을 이관시켰다.

경영기획본부는 구조조정실을 구조조정처로 변경하고, 기획처의 기능을 보강해 법무팀에 민원정책기능을 추가시켰다. 경영지원본부는 정보화추진처를 재편해 경영혁신실과 IT지원처로 업무를 분산시켰다.

영업본부는 수요관리실 및 전력거래실이 통합돼 전력수급처가 신설됐고, 판매SI실 기능이 경영혁신실로 이관됐으며, 가경산정기능이 영업처 요금전략팀으로 일원화했다. 또한 배전운영실을 배전운영처로 확대 개편해 배전처 전력계량팀이 배전운영처로 이관됐다.

해외사업본부는 해외사업 조직을 지역중심 경쟁체제로 재편해 해외사업처를 아주사업처로, 해외사업전

략실을 구미사업처로 변경하고, 신규사업처와 남북협력실은 원자력사업처와 남북협력처로 명칭을 바꿨다.

사업본부 및 지사는 사업본부 자율경영체제 강화를 위한 사업본부 스태프부의 위상을 강화해 9개 본부의 전략경영실장을 3직급에서 2직급으로 상향하고, 4개 본부의 기술지원팀장은 4직급에서 3직급으로 상향시켰다. 또한 서인천지점 등급이 1급으로 상향되고, 설비관리2팀과 IT지원팀이 3개소에 신설된다.

전력관리처는 광역정전 예방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해 강남전력소를 신설하고 신인천전력소를 1급으로 상향조정하며, 해남변환소장의 직급을 3직급으로 올리고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한전의 본부별 올 한 해 계획을 살펴보면 경영기획본부는 2015년에 한전을 '세계 최고의 글로벌 에너지 그룹'으로 성장시킨다는 청사진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략기획 역량 강화로 지속성장 견인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효율성 증진 △독립사업부제의 구체적 성과 창출 △적정 재무모델 유지로 재무체질 강화 △재무관리 프로세스 개선으로 수익성 제고 △전력그룹 구심력 강화를 통한 One Kepco 구현 등 6가지 주요 계획을 수립했다.

경영기획본부는 전력그룹 공동의 발전을 위해 유연탄 공동구매 확대 및 해외사업·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실질 협력을 주도할 방침이다.

경영지원본부는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세계적인 전력회사'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인적 추진동력 확보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상생의 노사문화 및 성과중심 보수체계 구축 △최상의 복지환경과 안전관리 국제화 추진 △물류관리의 효율성 제고 △중소기업 실질적 지원 강화

△최고의 사옥 건설 및 최적의 정주여건 조성 등 7가지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회사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인재 선점 노력을 강화하고, 전공능력 중심 채용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며, 필요인력 확보를 위한 우대 제도를 개선할 방침을 세웠다. 또 교차보직자 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전직군 간부를 대상으로 기업가치 공유 전략을 교육하기로 했다.

또한 조달 서비스 현장지원 강화 및 적기조달 체계를 구축하고, 계약정보 공개 및 온라인 창구지원 강화와 함께 납품 기자재 품질관리 강화 및 협력업체 품질경영을 견인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공공구매 확대 등 전력그룹사 차원의 상생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영업본부는 △고객감동 실현 △수익지향 마케팅 강화 △미래지향적 업무시스템 구축 △경영혁신·윤리경영 실천이라는 네 가지 업무계획을 기반으로 올 한해를 꾸려나간다.

영업본부는 고객중심의 고품격 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실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지향으로 고객만족도 정상을 고수한다는 계획 아래, 이를 위해 △대용량고객 154kV 공급범위 확대 검토 △전기요금 수납제도 다양화 △고객부담공사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전기사용계약 주요내용 '고객의 알 권리' 충족 △지장배전선로 이설 고객편의 제고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

또한 정전시간을 현재 17분에서 16.7분으로 0.3분 줄이고, 고압고장도 3%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배전분야 해외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배전설비 관리 혁신 및 IT화를 추진해 △

배전자동화 시스템 지속 구축 △지중화 및 선로 3상화 확대 △배전사령실 광역화·IT화 추진 △NDIS 기반의 新기동보수시스템 확대 △공가설비 관리시스템 개선 △지중설비 안전성 확보 △지중설비 원격 및 무인 관리체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송변전본부는 △설비 최적운영 및 적기건설로 안정적인 전력공급 △송변전설비 품질확보 및 신기술·신공법 개발 △환경변화 대응 업무체계 구축 및 성장동력 창출 △전력IT 서비스 고도화로 전력산업 선진화 △윤리 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으로 회사이미지 제고 등을 주요 업무계획으로 상정했다.

송변전본부는 이러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광역정전 근절 등 고장예방체계 구축을 통한 회사 이미지 제고와 함께 건설사업관리 선진화 및 전력사업 국민 이해 기반 정착이라는 세부 목표도 세웠다.

또한 설비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자재, 설비시공 품질향상과 함께 신기술·신공법 개발에도 힘을 쏟는다. 이와 함께 대용량 고객을 위한 'Prime Voice' 활용도를 제고하고 고객참여 이벤트도 시행할 계획이다.

해외사업본부의 올해 목표는 △1500MW 신규설비 확보 △SMART 표준화 확보 △KEDO 사업 종결협약 완벽 이행 △안정적 대북전력공급 △원전프로젝트 수주 △2000억 매출 달성 등이다.

해외사업본부는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업무프로세스 혁신-체계적 해외사업 추진 기반 강화 △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개발 △발전 운영사업의 안정적 수익기반 강화 △송배전 사업 다각화 적극 추진 △본격적인 자원 개발사업 수행 △해외 원자력사업 추진역량 집중 등의 해외사업 추진계획을 작성했다.

또한 개성공단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154kV 송변전설비를 조기에 준공하고, 공단(1단계)내

전력설비 적기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발전사, 내실 다지기 본격화

한전 발전6개사는 올 한 해 신뢰경영을 바탕으로 기본에 충실한 경영을 통해 내실 다지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한국남동발전은 올해까지 전 직원의 10% 수준인 총 188명의 혁신지도사와 혁신성과 분석전문가 10명을 양성하는 등 혁신 주도인력 양성을 통해 경영혁신의 내실 있는 추진을 준비 중이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적자원관리를 위해 주요직위 사내공모(Job Posting)를 20개에서 30개 직위로 확대하고 인사시기 정례화를 통한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남동 고유의 기업문화인 'KOSEP Way' 확산을 통해 기업문화를 확립하고 '노사간부 열린대화' 채널을 통한 노·사간 신뢰회복 및 파업후유증 조기 극복에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기술·건설분야에서는 우선 발전설비의 신뢰도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남동발전은 올해 발전량 목표를 4만3567GWh, 이용률은 69.09%로 설정하고 불시고장정지 제로화를 위한 10대 전략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IT기술을 활용한 비정상 운전상황 조기감지 시스템 구축 △불시고장정지와 직결되는 전기·제어설비 진단방법 과학화 △계획예방정비(O/H) 제도개선을 통한 정비신뢰도 향상 △보일러 튜브관리 선진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발전소 부분의 경우 삼천포 1,2호기의 Repowering

계획을 추진, 이를 통해 출력 13mw 증대 및 열효율 1%p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영동·여수화력1호기 장기운영 개선대책과 분당복합 가스터빈 성능도 개선된다.

이와 함께 현재 건설중인 영흥3,4호기, 예천양수 1,2호기의 적기 건설도 진행할 예정이다. 영흥화력 3호기는 6월말경 최초 점화에 이어 11월말 계통에 병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남동발전은 연소기술력 확보를 위해 △저열량 아역청탄 혼소확대 연소시험 △아역청탄 혼소율 확대를 위한 설비개선 △영동화력 #2 유연탄 혼소율 증대 △차세대 Dynamic Low NOx 버너 개발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저회 재활용기술 개발 △연소 신기술 확대 적용을 통한 최적연소 구현 △연소기술력 향상을 위한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 △해외 선진 연소기술 전문기관 벤치마킹 △연소공학실무 대학교재 발간 △영동화력 #1 순산소 연소기술 공동 개발 등 10대 전략을 수립, 시행할 방침이다. 매출액대비 R&D 투자목표도 1%(약 175억원)가량으로 달성할 예정이다.

한국중부발전은 올 한 해 조직역량 극대화와 국내외 발전사업을 선도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중부발전은 오는 5월 경 전 직원이 참여하는 중장기 '파워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전략 경영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100대 혁신과제를 압축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파워 경영혁신'을 통해 혁신동력을 확대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등 신규사업, 인도네시아 Cirebon 발전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핵심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보령 7,8호기 시운전, 인천복합 2호기, 제주내연 2호기, 제주덕천풍력 등 발전소 건설 및 시운전 단계

를 고려한 건설현장조직도 보강된다.

특히 발전연료의 안정적·경제적 도입을 위해 올해 731만톤의 유연탄 장기계약 가격을 조기에 합의하고 보령화력 제2부두 접안능력을 기존 13만5000톤에서 17만톤으로 증대해 수송경제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호주 Anvil Hill, 호주 Moolarben, 인도네시아 유연탄광 프로젝트 등 한전 및 5개 발전회사간 해외유연탄광 개발 테스트포스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5월에는 수도권 사업장 총량제 등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10월에는 환경성과평가 및 녹색구매 제도 등 선진경영시스템을 도입한다.

중부발전은 올해 3만9502GWh의 발전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월에는 발전소 효율향상을 위한 최신 효율관리프로그램 도입하고 보령화력 1,2호기 성능개선공사 적기 추진, 서천화력 1,2호기 연료 전환 등 수익성 개선계획 수립, 보령복합발전소 가스 터빈 성능복구 및 출력증대 등이 각각 추진된다.

중부발전은 레바논 복합화력 운영사업(435mw×2), 중국 구리산 발전사업(600mw×2), 인도네시아 Cirebon IPP(660mw) 등 해외발전 사업뿐만 아니라 당진 현대제철 부생가스 발전사업(400mw) 참여 등 국내 발전사업도 다각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부발전은 현재 진행중인 보령복합7,8호기, 인천복합2호기, 양구·덕천풍력, 보령소수력, 서천테마파크 등 건설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부발전은 인천복합 주기기(HRSG) 분리발주를 통해 기자재 구매 비용도 절감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서부발전은 올 해 △윤리·정도경영 실천 △시민기업(Corporate Citizen) 역할 강화 △경영혁신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체제 구축 △성과중심 기업문화 조성 △재무건전성 제고 △중소기업 지원 성과창출 △재미있는 일터 구현 △발전설비 효율적 운영 및 건설 △미래 성장동력 개발 △R&D 투자 확대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서부발전은 시민기업(Corporate Citizen)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 인당 목표시간 12시간으로 늘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신뢰받는 깨끗한 기업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서부발전은 태안4,5호기 평택1,4호기 탈질설비 설치, 태안 소수력 및 삼랑진 태양광 CDM 등록 추진, 기후변화협약 대응 감축량 인증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으로 환경친화경영도 펼친다. 발전연료의 경우 연료유 소요량 중 국내입찰 40%, 국제입찰 60%로 진행하고 올해 총 유연탄 소요량 1122만톤 중 80%가량인 896만톤을 장기 안정적으로 조달함으로써 발전용 연료의 중장기 안정적 조달도 달성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건설중인 태안 7,8호기와 6월부터 시작될 군산복합화력 건설 등 적기 준공을 통한 발전소 운영을 최적화 할 예정이다. 폐지된 군산화력부지에 700mw급으로 신형 고효율 LNG 복합발전소로 건설되는 군산복합화력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고효율과 친환경 복합발전소로 건설된다.

삼랑진양수발전처 하부담 유희부지 활용 3000kW급 태양광발전소 건설, 태안본부 방수로 2200kW 소수력 발전소와 충남서산 가로림만에 48만kW(2만×24대) 조력발전소 건설 등이 예정돼 있으며 김천풍력의 경

우 5월경 타당성 검토 후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태안 LNG 지하 저장 사업의 경우 3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4월께 서부, SK건설, 석유공사와 사업공동수행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해외사업의 경우에도 라오스 수력발전사업(372mw)·필리핀 하이브리드 O&M 사업(32mw)·인니 수마트라 석탄발전사업(100mw×4기) 타당성 조사를 비롯, 한전과 협의 후에 가나 가스복합 발전사업(300mw) 사업도 nwis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남부발전은 올해 변화혁신 추구, 기업가치 제고, 경영자원 최적운영, 고객존중 경영실천 등의 전략과제를 통해 수익 증시의 내실 경영, 활력지향의 인간존중 경영, 노사상생의 열린 경영, 미래지향의 변화혁신 경영 등을 달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혁신을 위해 'V-KOSPO'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기업 최고수준의 혁신 선도그룹을 유지할 방침이다.

남부발전은 스피드·열린 경영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성과를 최적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장기 전략 실행 도구인 경영전략시스템(BSC)을 정착하고 스피드·열린 경영 전사적 확산을 위해 구두, 메모, 이메일 보고 활성화 등 결재단계 및 보고서 생산을 최소화 하는 등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한 조직문화를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남부발전은 풍력발전을 특화사업으로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004년 준공된 한경 1단계 풍력발전(6mw)를 중심으로 건설에 들어갈 한경 2단계(15mw), 성산(20mw), 태백(20mw)와 제주 남원 및 청수지역, 강원 정선지역 등지에서는 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4월경에는 강원 평창지역에 대한 풍력발전 기본계획도 수립된다. 또 강원 삼척지역 등 유망지역의 타 사업자 개발지역에 지분투자를 통한 사업 공동참여 방안을 검토하고 제주 월정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 사업 참여, 제주·부산 등 서남해안 해상풍력 타당성 조사 등 해상풍력의 선두주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복안이다.

올해 남부발전은 약 4만9365GWh의 전력생산에 설비이용률 72.8%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동7,8호기, 남제주3,4호기, 영월복합, 한경풍력2단계, 성산·태백풍력 등 건설중이거나 예정인 발전소 건설공정을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하동화력 7,8호기의 경우 EPC 턴키사업에 맞는 사업관리 체계 정착, 아일랜드 EPC 턴키사업 특성을 고려한 건설품질 확보체계 확립, 기자재 공장검사 위탁용역 수행에 따른 품질관리체계를 재정립하는 등 EPC 턴키사업을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료의 안정적·경제적 조달 방안도 추진된다. 호주 40%, 인니 40%, 중국·러시아 20% 등의 유연탄 국가별 안정수급 기반을 확보하고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고 하동화력 7,8호기 건설 대비 4국 20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ACE 2010' 달성을 추진중인 한국동서발전은 올해 상시 경영혁신 체제 정착을 위해 중기비전 'ACE 2010' 수립에 따른 혁신 방향을 재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동서발전은 계약 및 입찰진행정보 전사 실시간 정보공개(Pro-Zone 시스템)과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정 및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자재관리 및 구매 프로세스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당진 9,10호기 사업추진을 통해 차세대(100만kw급)

발전소 건설을 대비한 기술역량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전 해외사업에 대한 유기적 지원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연 연계활동 강화와 울돌목 조류 시험발전소(1MW) 건설 추진을 통해 특화된 미래지향적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동서발전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발전소 호기별 500일 무고장 운전 목표를 설정했다. 발전 운영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플랜트 운전관리시스템(POMS)도 내년말까지 각 사업소별로 구축한다.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선도적 역할 수행하기 위해 10월경 당진 소수력 발전의 CDM 등록 과 6월경 동해 태양광발전의 CDM 배출권 거래도 추진한다. 또 당진 2호기 탈질설비 설치공사, 일산 2복합 저NOx 버너 설치 공사도 지행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작년 말부터 본사 이전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올 해 시작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러나 올 한 해 한수원은 신고리 1,2, 신월성 1,2, 신고리 3,4호기 등 총 6개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등 어느 해 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됐다.

특히 한수원은 대규모 건설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만반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안전 최우선 경영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선진 원전 운영 기술 정착을 위해 총 26개 분야에서 설비신뢰도프로그램등을 적용하고 본사 및 사업소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한전기공, 한전KPS로 새 도약 다짐

한전기공이 1월 1일부터 회사명을 '한전KPS(주)'로 변경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한전KPS는 현재 발전정비 시장 개방 압력의 강화되고 해외 제작사의 민자발전사 OEM사업 진출의 가속화, 민간정비업체 육성 정책의 정비시장 경쟁도입이 예상되는 등 현재의 급변하는 정비산업 경영 여건에 맞서 경쟁능력 강화·고객만족 실현·경영혁신 정착·조직활력 제고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종합플랜트 서비스회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한전KPS는 올 한해 △고객·혁신·윤리경영의 실현 △차별화된 기존사업 공고화 △시장개방 대비 신성장동력 확보 △정비기술 고도화로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한전KPS는 발전설비 연관사업 수주 목표를 올해 300억원으로 설정, 신규 민자발전, 집단에너지 설비 정비 확대,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로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속 성장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사업 수주 목표도 300억원으로 설정, 파키스탄 SAIF 220MW 복합 O&M공사 등 7개 PJT 추진, 인도·필리핀·호주 3개국을 기존 사업과 연계신규 물량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해외시장의 전력그룹사 동반진출을 통한 시너지효과도 창출할 예정이다.

전력IT 전문기업인 한전KDN은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전력IT 등 미래 성장 주도 사업을 발굴해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전KDN은 올 해 안정적 수익 기반 확대를 위해 기저사업 중심의 안정적 지속성장 추진과 고 부가가치 신규사업 창출과 사업관리 효율화를 통해 수익중시 기업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IT 신성장

동력 확보와 미래성장 주도 사업 및 서비스 발굴로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전략적 조직, 인사 및 핵심기술관리를 위해서는 중장기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조직 및 인사운영과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개선 및 성과강화를 중요시했으며, 차세대 전력IT 핵심기술 리더십 확보와 미래 수익기반 확보를 위한 연구역량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력그룹사 CEO 대거 바뀐다

올 한 해 전력그룹사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바로 사장단이 대규모 바뀐다는 점이다.

우선 한전의 경우 현 한준호 사장의 임기가 3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신임 사장 공모에 들어갔다. 한전

사장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2월 8일까지 신임사장 응모 신청을 접수한다.

여기에 최근 사퇴한 동서발전 이용오 사장을 포함, 한수원 이종재 사장, 서부발전 김종신 사장, 남부발전 김상갑 사장, 남동발전 박희갑 사장 등 6개 발전회사 사장 중 5명이 모두 임기도 4월 1일부로 만료된다. 한전기술 임성춘 사장의 임기도 6월에 끝이 난다.

임원 중에서도 한전 부사장 및 송변전본부장, 한수원 발전본부장, 남동발전 감사, 서부발전 관리본부장, 남부발전 관리본부장, 중부발전 기술본부장, 동서발전 감사 및 기술본부장 등이 임기가 끝나게 돼 후임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변우식 | 전기저널 객원기자〉